





왕인 박사 약력

출생 : 백제 14대 근구수왕(서기375~384년)때에 영암군 군서면 성기동 (현재 동구림리)에서 출생

8세 때 문산재에 입문

18세 때 오경박사에 등용

32세 때 일본국 초청으로 도일

업적

- 일본 飛鳥(아스카) 문화의 원조
- 일본태자(토도치랑자)의 사부
- 정치 고문으로 논어, 천자문 등을 전수, 글과 문장 학문의 스승
- 기술, 공예, 가요의 창시 등 일본 문화의 원조

묘역 : 일본 대판부 매방시(오사카 히라카타시) 소재 대판부 사적 13호 지정(1938년 5월)

왕인박사 소개

{:SHOWAD('150', 'right')}:

왕인 박사는 백제 제14대 근구수왕(서기 375~384) 때에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성기동에서 출생하였다.

8세 때 월출산 주지봉 기슭에 있는 문산재에 입문하여 유학과 경전을 수학하고 문장이 뛰어나 18세에 오경박사에 등용되었다.

백제 17대 아신왕 때에 일본 응신천왕의 초청을 받아 영암의 상대포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당시 왕인은 32세였으며, 상대포는 국제 무역항으로 신라의 학자 최치원이 당나라로 유학을 갈 때에도 이곳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고 전해 오고 있다.

왕인은 논어 열권과 천자문 한권을 가지고 도공, 야공, 와공 등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도일하여 일본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학문과 인륜의 기초를 세웠으며, 일본가요를 창시하고 기술, 공예를 전수함으로써 일본인들이 큰 자랑으로 여기는 아스카(飛鳥)문화와 나라(奈良)문화의 원조가 되어 일본 사회의 정치 경제와 문화예술을 꽃피웠다. 왕인 박사의 묘지는 일본 오사카(大阪府) 히라카타시에 있으며, 1938년 5월 오사카부 사적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왕인 박사의 탄상지인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성기동에는 왕인 박사 유적지를 정확하여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매년 양력 4월 초 왕인문화축제 첫째날에 왕인 박사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